

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

■ 파견대학 정보

대 학 명	칭다오이공대학교 칭다오대학	기숙사비	5400 /한 학기
파견지역	칭다오	기숙사비 납부방법	일시불(O)
파견기간	20190902~20191231	기타비용	생활비 2500~3000위안

■ 파견자 정보

성 명	△△△	학 과	△△△학과
성 별	남	학 년	2학년

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.

- 첨부 1. 대학 현황 보고서
2. 교환학생 파견 수기

2020. 01. 14.

파견자 : △△△ (서 명)

대학 현황 보고서

■ 수업

모든 학교가 그렇듯 반 배치고사를 통해 수준별 반을 배치 받습니다. 이 때 자신의 실력과 딱 맞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반으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. 학생 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고급반은 없고 중급반 A, B와 초급A, 초급B1, B2, B3, B4반만 있는데 초급 A반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 사실상 수업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적다고 보면 됩니다. HSK3급~4급 정도 수준은 초급B반에 배정받을 거고, 4~5급은 중급A 그 이상은 중급B에 배정받을 것입니다. 사실상 중급B가 고급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. 본인은 초급B2반에 속했는데, 초급반의 경우 각 반의 학생 수가 12~14명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직접적인 이야기하기도 수월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 물어볼 수 있어서 편합니다. 선생님들은 모두 우호적이며 몇몇 분들은 친한 학생들과 사적으로 함께 놀 정도로 친화적입니다. 배우러 어학연수로 간 입장에서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수업은 총 4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,2교시는 Boya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초반에는, 아니 그냥 연수 내내 수업에 가는 게 귀찮았습니다. 20분가량 쉬는 시간을 갖고 10시 10분부터 3교시를 시작하는데 월수금은 听力, 화목은 口语를 진행합니다. 과제는 반마다 다르지만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닙니다. 그냥 딱 수업 끝나고 복습하기 적당한 정도의 분량입니다. 한 단원 끝날 때마다 해당 단원 쪽지시험도 보고 5개 단원이 끝나면 성적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단어시험을 봅니다. 또한 학습 어플로 과제 혹은 참고하면 좋을 연습 문제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확실히 수업 면에서 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반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학습 면에서 매우 만족합니다.

■ 환경 (위치, 기후, 교통, 주변 편의시설 등)

가장 단점이자 장점, 솔직히 말하면 단점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. 물론 노는 걸 우선시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말입니다.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편에 속하진 않습니다. 버스타고 25분~30분 거리에 완다몰을 비롯한 여러 백화점이 있는 중심가가 있습니다. 이곳에는 많은 한국음식점이 있는데, 삼겹살은 어딜가나 있고 감자탕, 부대찌개 등 정말 많습니다.엽기떡볶이는 이곳에서 좀 더 가야 있지만 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배달 시켜먹는 걸 추천합니다. 이곳에 영화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놀이시설들이 모여 있고 맛집들도 많으니 찾아서 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. 좀 제대로 놀려면 오사광장 쪽 시내까지 가야하는데 버스랑 지하철만 타면 2시간 정도 걸리고 가기도전에 지쳐버립니다. 그러니 4명이면 그냥 택시타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. 일반적으로 100-120위안 정도 나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인당 30위안씩 정도니 괜찮습니다. 아니면 이촌시장으로 50위안 내고 택시타고 거기서 지하철타고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것 역시 온 중으면 1시간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립니다. 학교 주변 편의시설 중 헬스장 시설이 정말 좋은데 한 학기 550위안으로 다소 비싼 편입니다. 하지만 진성 헬충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. 물론 본인은 한 학기 회원권 끊고 학기 동안 간 횟수가 30번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. 돈 아깝습니다.

주로 밥은 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해결하는데 정문에는 길거리 음식들과 꽤 괜찮은 식당들이 있는데 주로 길거리 음식을 포장해서 먹는 편입니다. 괜찮은 식당들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주로 저녁에 술 마실 때 갑니다. 후문은 전부 식당인데 마라샹궈, 황면지 등등 한국인 입맛에도 맞는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. 또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음식점들도 있어서 잘만 찾아보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중국인 친구를 적극 사귀어서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숨겨진 맛집들을 찾기 편합니다. 후문은 저녁 8시 정도에 닫히니깐 시간 참고하고 얼른 먹어야합니다. 시간 까먹고 양꼬치 먹다가 3-40분 땀 돌아서 기숙사로 복귀했습니다. 날씨는 한국이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. 하지만 햇볕이 강한데 다행히 습기는 적은 편이라 한국처럼 짜증날 정도는 아닙니다. 겨울엔 한국처럼 그냥 춥습니다.

대학 현황 보고서

■ 기숙사 정보

비 용	5400위안	내부구조	2인 1실
기숙사 규정 사항	전기포트와 같은 발열 기구 사용금지, 음주 금지, 흡연금지		
주요사항	흡연금지		

■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



방 호실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.

온 중계도 좀 넓은 방을 쓸 수 있었는데
사진에 보이는 공간이 나 혼자 쓸 수 있는
공간입니다. 2인 1실이기 때문에
불편할거라 생각했지만 공간이 넓어서
꽤나 괜찮았습니다. 인당 각자 책상 침대 옷장이
주어지는데 옷장 역시 방 호실마다 크기가

제 각각 다릅니다. 왜인지는 모르겠지만

옷장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서

교환학생 생활 내내 기숙사에서

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.

청소는 모두 깔끔하게 되어 있는 편입니다.

벌레는 작은 벌레 몇 마리 빼고는

전혀 보지 못했으니 벌레 걱정은 중국이라고

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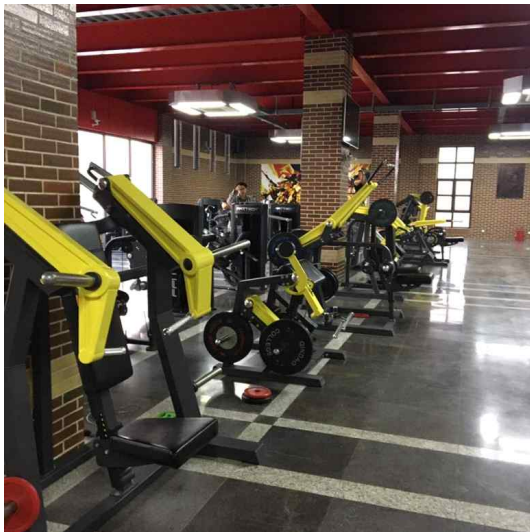
사 진 첨 부

대학 현황 보고서

■ 기타 시설 (도서관, 강의실, 식당, 세탁실 등)



세탁실은 기숙사에서 걸어서 3분정도 거리에
위치해 있습니다. 건조까지 하면 10위안
세탁만 하면 7위안인데 개인적으로
시간이 충분하다면 세탁만 하는 걸 추천합니다.
세탁만 하는 학생 발레를 더 우선으로
하시기 때문에 자칫 발레 한 번 하러 갔다가
5시간 지나서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그리고 건조까지 한다고 해서 완벽히 되는 것도
아니라 부분적으로 축축한 부분이 있어
추가적으로 또 방에 와서 건조기에 넣어야 합니다.



헬스장은 1학기에 550위안입니다.
비싼 편에 속하지만 시설을 보면 값어치 한다고
생각합니다. 진짜 헬스를 할 생각이고
여기 와서 몸을 제대로 한 번 키울 생각이려면
추천하지만 대신 정말 자주 가야 돈이 아깝지
않습니다. 헬스장 위치는 기숙사에서 걸어서 7분
정도 소요됩니다.

헬스기구를 잘 모르지만 걸보기에 정말 다
최신식입니다. 기구도 정말 많아서
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원하는

운동기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 입니다



대학 현황 보고서

■ 기타 시설 (도서관, 강의실, 식당, 세탁실 등)



후문 입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.

겉보기에 허름하고 되게 위생까지
안 좋을 것 같지만 허름하기만 합니다.

사실 위생이 좋다고 확신은 못하지만
장이 안 좋은 편인데 후문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
난 적은 없습니다. 마라상귀, 양꼬치를 비롯한
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음식점들이 가득합니다.
이 학교 주변 맛집은 대부분 후문에 있습니다.

구석구석 맛집들이 숨어져 있으니
중국인 친구를 얼른 사귀어서 함께 다니는 걸
추천합니다. 참고로 오후 8시면 문이 닫히기
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식사를 마쳐야합니다.

사 진 첨 부

사 진 첨 부

교환학생 파견 수기

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학교입니다. 특히 처음 중국교환학생을 떠난다면 더욱이나 추천합니다. 지역사투리가 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 초보도,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웠지만 회화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도 배우기 용이합니다. 혹여 중국음식이 안 맞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언제든 쉽게 한국음식을 접할 수 있고 가격 역시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싼 편입니다. 칭다오 도시 자체가 한국인에게 우호적이기 때문에 가서 행동만 잘한다면 쉽게 중국인을 사귄다 수 있습니다. 학교 내에 외국인 비율도 높은 편인데 유학생 기숙사 건물 1층 카페에 공부하고 있으면 쉽게 다른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중국어 회화실력도 늘리고 영어 회화실력도 늘리고 일석이조입니다. 또한 수업 역시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, 선생님들이 모두 친화력이 좋으셔서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모르는 거 끊임없이 물어보며 수업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좋은 수업 분위기입니다. 단순히 책에서만 사용되는 단어 문장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덧붙여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적재적소 상황에 맞는 단어 문장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이곳에서 교환생활을 하며 느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습입니다. 아무리 수준 높은 수업을 들어도 복습을 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. 특히 중국어의 경우 다른 외국어보다도 외울게 더 많은 편에 속한다고 느끼는데, 쉽다고 복습안하고 까불다가 나중에 한 번 몰아서 공부하면 전에 배웠던 내용 생각도 나지 않고 진도에 뒤처지기 일수입니다. 복습을 해야 완벽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환학생 생활이 의미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해외연수를 가는 이유가 직접 외국인들과 부딪혀서 배운 단어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수업에서 배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먼저 혼자 복습하는 것이고, 두 번째 그걸 외워 상황에 맞게 외국인에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인들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이걸 지극히 개인적이지만, 인지할 수 있는 친한 몇 명을 제외하곤 다른 한국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중국인과 외국인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함부로 내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감히 해보자면, 이곳에 와서 매일같이 한국인들끼리 용기증기모여 소주마시고 노는 것을 봤는데 이럴 거면 한국에서 학원 다니면서 놀지 뭐 하러 굳이 중국까지 와서 고생하며 노는 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인지할 수 있는 친구 몇 명은 사귀는 게 좋습니다. 같이 유학 온 친구나 룸메이트나. 하지만 4개월의 짧은 시간인 만큼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인들과 밥을 먹고 같이 노는 게 많이 어색하고 힘든 건 당연합니다. 하지만 기왕 온 거 한 문장 더 말하고 한 문장 더 들으면서 실생활에 더 자주 사용 되는 단어, 발음 등을 캐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게 4개월의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. 덧붙여 공부만큼이나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에서 노는 건 정말 그냥 노는 거지만, 이곳에서 노는 건 공부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. 클럽을 가든, 술집에 가서 새벽까지 몇 시간을 있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하나의 경험이고 이게 그 나라의 젊은 문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술만 마시며 시간 낭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. 놀이를 하고,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게 노는 것조차 공부가 되는 유학생들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.